

영림전자공업(주)

동기부여로 안전관리 정착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는 윤진봉 안전과장

무재해 목표달성으로 인간존중 이념 실현이라는 경영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홍순현 사장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영림전자공업(주)이다.

이 회사는 전자렌지의 고주파 차단 Door 제작 업체로 약140명의 종업원으로 지난해 216억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수출 주력 중소기업으로 건설한 기업이다.

국제화 경쟁력에 맞서기 위해 ISO 9002 품질시스템과 100PPM 품질인증을 96년과 98년에 이미 취득하였고, 금년 12월에 ISO 9002 인증 취득을 위한 재심사 중으로 IMF체제하에 국

가 경쟁력 향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영림전자공업(주)의 생산공정은 프레스, 공기 압축기, 압력용기 등 모든 생산 장비가 유해·위험 기계기구로 단 한순간의 방심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환경안전은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자율적인 환경안전관리를 정착시킴으로서 인간존중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라는 환경안전 경영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이다.

이로인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현장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 습관화, 정품, 정량, 정

위치"의 3정5S 운동을 모든 안전의 기본으로 삼고, 윤진봉 안전과장이 직접 활동상황에 대해 점검, 평가를 한다.

평가에 따른 결과로 부서별 포상을 하는 등 작업자들이 술선수범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식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Tool Box Meeting 등 다양한 위험 예지훈련과 아차사고에 대해 작업자를 직접 참여시켜 개선책을 찾는 등 안전은 안전관리자만 해서는 않된다는 직원들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함께 참여식 안전관리도 하고 있었다.

윤진봉 안전과장은 "예전에는 안전교육 등 인적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설비의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 현장의 프레스,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를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받았는데, 산업안전공단의 정기검사시보다 정성들여 몸을 아끼지 않고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지적해 주어 진심으로 고마웠으며, 입고 있던 작업복이 땀과 기름으로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 세탁비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마디 덧붙였다.

현장의 모든 기계기구는 많은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기계이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장치 설치가 철저하였다.

특히, 프레스는 광전자식과 양수버튼식 등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었고, 그 외에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대상이 아닌 다른 사출 성형기 등 모든 기기들 또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작업자로부터 위험을 차단하고 있었다.

또한, 윤진봉 안전과장은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이므로 이를 무시한 안전관리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안전직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 C.P.Q 2.2.0작전"에 대한 슬로건을 소개하였다.

이는 안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작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 C(원가) : Total Cost 1/2 ▲ P(생산) : 생산성 2배로 ▲ Q(품질) : F-Cost Zero 화 / ▲2 : 두배로 ▲ 2 : 반으로 ▲ 0 : 새롭게로



무재해 목표 4배 달성을 위해……

서로 상관 관계를 이루며 안전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또한, 영림전자공업(주)은 사내에서의 안전에 만족하지 않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면 동종업종 5개사와 함께 안전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는 계기로 만들어 현재 21차 환경·안전연구회를 개최하였고, 외부로부터는 최근 안전 기술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현장에 적용시키는 적극적인 안전을 하고있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으로서 영림전자공업(주)은 빈틈이 없을 만큼 안전관리를 하여 금년 6월 24일에 무재해 목표3배(1290일)달성을 이룩하였고, 무재해목표 4배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윤진봉 안전과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자율적인 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각자의 몫을 충실히 이행하고,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동종업체에서 선두 주자로 앞장설 것이며, 안전에서도 선두주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